

## 고마운 나주 경찰

**전산망·전화로 끈질긴 사람찾기**  
60대, 20년 만에 남동생 상봉

서울시 마포구 김 모(여·69)씨가 경찰 도움으로 20년 전에 헤어졌던 남동생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나주시 왕곡면 태생인 김씨는 20년전 충북 보은군으로 이주하면서 남동생인 김모(63·나주시 남외동)씨와 헤어졌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병세가 더 악화되기 전에 남동생을 찾겠다며 이달 중순부터 나주 지역 곳곳을 돌며 남동생 행방을 수소문했다.

길을 헤매던 김씨는 지난 19일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 박철진 경사를 만나 남동생을 찾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김씨의 사연을 들은 박경사는 경찰 전산망을 통해 인적사항이 비슷한 52명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 남동생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박경사 도움으로 남동생과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던 김씨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해줘 너무 고맙다"며 박경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함평쌀 연말 불우이웃에 쌀 전달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과장 문병조)는 지난 20일 해보면 해보리 진연임(여·80)씨 등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3가구를 방문, 쌀과 라면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장 박용규씨

신임 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장에 박용규(52·사진)씨가 임명됐다. 박소장은 나주가 고향으로 지난 7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 다도해해상관리사무소 과장과 내장산남부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규례=김동호기자 dhkim@



# 고흥 '오지개발' 21억 집행 무산

## 전남도 "5개면에 나눠먹기 배정" 승인 거부

### 군의회 "의회·군민 기만행위"

고흥군이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개 면에 집중 투자토록 규정된 예산지침을 무시하고 5개 면에 '나눠주기 식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남도의 승인 거부로 예산집행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흥군은 올해 도화면내 6개 지구에 국·도비 등 오지개발사업비 21억 4천 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고흥군은 그러나 집중 투자토록 규정

된 예산지침을 어긴채 5개 면에 3억9천 600만원씩 나눠 투자하는 편법예산을 편성, 군의회 승인을 거쳐 전남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

전남도는 이에대해 집중 투자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거부, 올해 오지개발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처치에 나섰다.

고흥군의회 이재후 부의장은 지난 15일 군정질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시 오지개발촉진법 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부 임의로 변경한 것은 의회와 군민

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이로 인해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군정 사상 유례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 규정을 준수, 행정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균형발전 오지개발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고흥군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21억4천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 희망돼지가 이웃에 사랑을 전합니다

해남군은 지난 8월28일 실·과·소 직원 500명에게 나눠줬던 돼지 저금통을 수거, 이웃돕기 성금 105만2천380원을 모았다. 해남군은 오는 27일까지 '희망돼지 나눔행사'를 통해 동전 모금운동을 계속한 뒤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kr

해남군은 지난 8월28일 실·과·소 직원 500명에게 나눠줬던 돼지 저금통을 수거, 이웃돕기 성금 105만2천380원을 모았다. 해남군은 오는 27일까지 '희망돼지 나눔행사'를 통해 동전 모금운동을 계속한 뒤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장성 임대아파트 입주식

###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임대아파트인 장성 국민임대아파트가 준공돼 22일 입

주식을 갖는다.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이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4년 1월 착공했으며 21평형 150가구, 24평형 180가구 등 모두 330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1평형은 보증

금 1천300만원에 월 8만8천원, 24평형은 보증금 1천700만원에 11만1천원으로 임대비용이 저렴하다. 장성군은 지난 1월 9억5천만원을 투입해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bg@



"난타공연 보며 송구영신을" 퓨전사물놀이패 '얼수'의 '송년 난타공연'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통타악공연에 이어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울리는 마술공연이 펼쳐진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중남부권 생명·웰빙산업 육성을"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박사

전남도에서 가장 낙후된 보성과 장흥·강진·완도 등 중남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과 웰빙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특정지역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장흥군청에서 열린 '중남부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박사는 "중남부권은 '해양과 문화, 건강, 여유'와 같은 생명과 웰빙산업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

에서 이들 낙후지역 집중지원을 위한 '특정지역지정(낙후지역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주장했다.

김박사는 ▲보성 녹차클러스터와 소리문화도시 조성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쾌적하고 풍요로운 장흥건설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을 통한 강진 문화관광클러스터와 웰빙농산물 중심지 조성 ▲섬 해양특성과 해양생물을 활용, 청정수산물 생산과 해양관광지역으로 완도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포괄 사업비 없앤다더니

### 화순군수 2억2천만원 집행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고 선언, 관심을 모았던 전완준 화순군수가 올해 포괄사업비 2억2천만원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10월말 의회에 출석해 포괄사업비를 없애 무명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본보 12월1일자 2면 보도〉 그러나 전 군수는 최근 포괄사업비 잔액 2억2천만원을 마을 상수도 시설과 경로당 지원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행주 화순군 의원은 최근 군정질의를 통해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만큼 올 사업비 잔액은 추경때 다시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올해 남은 포괄사업비를 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비로도 불리는 포괄사업비는 자치단체장 등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칭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별칭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최고의 맛, 최고의 서비스

금수장관향호텔·이리향하우스

국내결혼, 국제결혼 전문업체  
**결혼정보 모모**

결혼정보 모모는 국내결혼, 국제결혼 전문업체로, 회원들의 결혼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062) 223-5049

**高유가 시대 걱정!! 끝**

공익기부금  
무명행정의 혁명

문의: (주)컴플렉스 (01773-0993)